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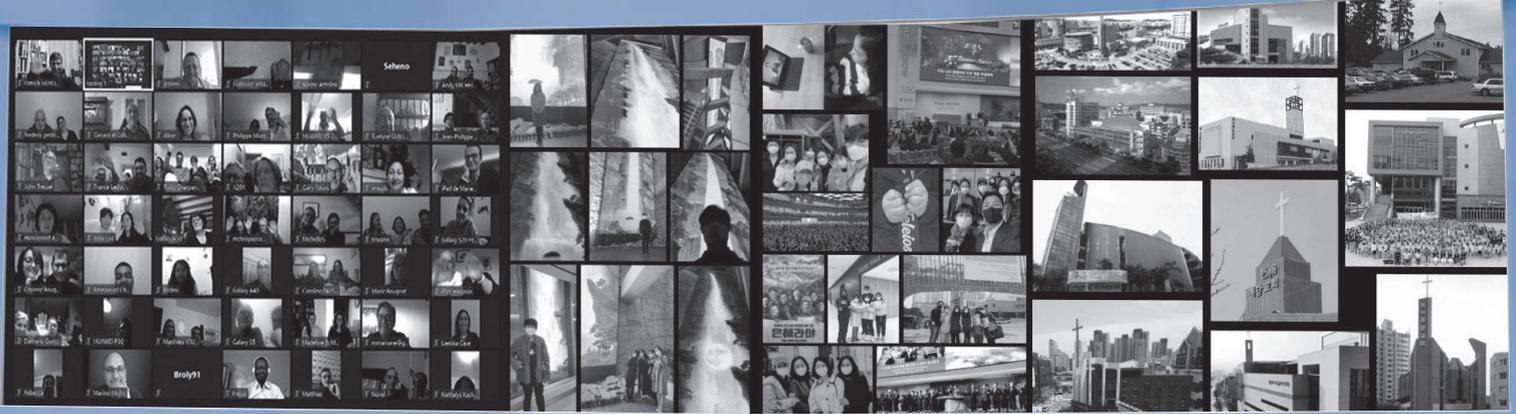


‘온전함을 사모하는’ 글로벌 특별새벽부흥예배

saqa와 함께하는 제19차 봄 특별새벽부흥예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Let Christ Be King

뉴스레터 News Letter 248호 주후 2021년 4월 17일(토)



Zoom으로 참여한 글로벌 교회들

은혜의 폭포

특새게시판

국내 참여교회들



새벽기도대첩

사진제공: 뉴스네트워크실 제공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권속들
전심전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결사적인 찬양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일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뉘인 건 풀리고 어둠은 뚫리고, 저주는 끊어지게 하셔서,
죽은 자는 살리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시대의 잘못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Culture Marxism)와 세속주의를 물러가게 하고 정리되며,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거룩한 폭발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위대한 자로 쓰임 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4월 16일 오정현 담임목사님의 기도 인도 중에서-

TODAY'S PRAYER

온전함을 사모하는 신앙계승을 이루게 하옵소서.

- 1/ 다음세대를 성령님의 강력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귀의 간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세속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뉘인 건 풀고, 어둠은 뚫어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2/ SaGA와 글로벌참여교회들이 영적 자산을 함께 나누는 영적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으로 쓰임 받으며, 성경적인 미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싱크탱크(Think Tank)가 되게 하옵소서.
- 3/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의 불 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대로서 선교 현장의 영적 전쟁에서 완승하여 생명구원의 만선을 누리게 하옵소서.
- 4/ 세워주신 강사님(폴 칠더스 목사, 현승원 의장)과 담임목사님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신 은혜로 다음세대를 강력하게 무장하는 영적 비밀병기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첫째 날

둘째 날



조엘 비키 목사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사 64:7, 약 5:17)

“엘리아는 그의 기도를 ‘기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절망할 수 있던 존재였습니다. 기도 없는 삶의 여정이 기도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존 파이프 목사

영원한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고후 4:16~18)

“무엇을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영광입니다. 짧은 인생 대신에 무덤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이클

하나님의 자녀가 누
기도의 특권(롬 8:14~

“기도하기 힘들다면, 그 아버지께 말하듯 말입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고 아버지께 나가세요.”

부활의 주님,
우주 대통령(시 2:7~12)

권성수 목사



“주님은 우주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 나의 삶의 대통령이심을 고백할 때 믿음의 근육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 넘치는 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전케 하시는 왕의 치유

(마 9:35~10:4)

이동원 목사



“처음에는 기적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때부터 제 아이들을 온전케 해달라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마 25:40)

“자유와 복음을 호흡하게 양에서 여러분들을 모시. 님 모시고 특새하는 그날”



21세기 교회에 주어진 기회와 당면과제(엡 6:10~13)

오스 기니스 교수

오늘날 가장 큰 당면과제는 세속주의의 성장입니다. 세속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초자연적 증오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세속적인 신앙의 자유주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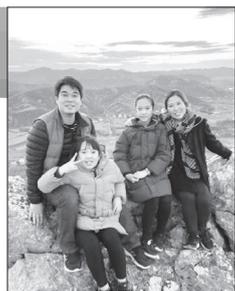
또한, 성 혁명(Sexual Revolution)이 전통적인 부모관계와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Cultural Marxism)가 여성학, 인종학 등 다양한 모습으로 기독교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서구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렸고, 한국교회는 이 왜곡에 맞서 싸워주어야 합니다.

설교요약



SaGA는 하나님이 앞서 이끄시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SaGA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세워져 나갑니다. SaGA는 겸손한 동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입니다.



김형선, 박선경 선교사(알바니아)

COVID-19로 전세계가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을 계획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이 알바니아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찬양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진호, 장호빈 선교사(에콰도르)



역사의 불청객으로 찾아온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저희에게 글로벌 특새를 통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받은 것만으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세굴라의 축복이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져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선교사 소감



호자이로 선교사
(오엠 포르투갈)



줌(ZOOM)으로 함께 한 사랑의교회 글로벌 특새는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현상이었습니다.

특새의 말씀은 저의 마음을 터치하셨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을 붙들고 치유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로 보통 남을 위해 중보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픈 부분을 붙들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치유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새를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셋째 날

리브스 총장

리는
(15)

“나 내뺄게요. 자녀가
다. 도움을 간구하세요.
자녀의 용기 전도만 가
”

넷째 날



짐 심발라 목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행 12:5~7)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섯째 날



오스 기니스 교수

21세기 교회에 주어진 기회와
당면과제(엡 6:10~13)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당면과제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세속주의의 성장’입니다. ... 저는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의 도전에 당당히 맞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호 의원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평
고 특례하는 날, 담임목사
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살전 5:15~18)



김예랑 성도

“의학적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고, 누워있고, 고난 한
가운데 있지만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
사 기도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이루시고

(시 37:5)



조명환 장로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사
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
지만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강민 목사
(대전새중앙교회 / SaGA 17)

SaGA와 함께하는
특례, 은혜의 감사편지



대전새중앙교회는 SaGA를 통해 제19차 글로벌 봄 특별새벽부흥예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교회가 특례를 더욱 사모하게 된 이유는 저희교회에서 1월부터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특례 주제를 본 순간, 우리교회를 향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확신과 기대로 기도와 사명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며 특례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특례 첫 날부터 참여하면서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시작된 은혜의 파고를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들의 메시지들이 저희교회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영적인 외식(外食)이 아닌 영적인 특식(特食)을 누리며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듯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보편성은 무너뜨렸지만, 한편으로 이런 특별성이 주어짐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벽을 매일 마주합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날마다 넘치시는 은혜와 사랑이 사랑의교회와 영가족들께 항상 있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SaGA와 함께하는
특례, 은혜 소감



류은형 집사
(목양5팀 / SaGA 17)

주님의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 SaGA의 정진임을 되새겨보며, 특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며 온전함의 고봉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영가족들에게 기적 같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SaGA를 통해 온전한 크리스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고 특히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영적 집현전, 영적 사관학교로 쓰임 받아 주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같은 은혜’를 구하는
보호자인가, 환자인가?

윤성옥 집사

특례의 기적



‘기적의 일상화’ (Lifetime of miracle)의
주인공

임은식 권사



‘환자세요? 보호자세요?’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듣습니다. 수술 이후, 정기검진에서 전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피하고 싶던 항암치료가 선택의 여지없이 울면서 시작됐고, 건강한 환자로 인정받음과 상관없이 응급상황까지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 그냥 영원한 집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회차가 지날수록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항암과 방사선치료 중에도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나도 사라지려나?’하는 기대를 해보면서도 생사회복이 모두 주님께 달려있으니,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쁘게 찬양하며 맡겨진 삶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된 방사선 치료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특례의 계절에 보호자같은 환자는 주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2월, 친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동역자들의 중보기도로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였고, 은혜계시관에 사연을 올린 언니를 위해 오정현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눈빛이 또렷할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언니가 예전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는 오직 언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 ‘기적의 일상화’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언니의 온전한 회복도 기적이요, 이렇게 특례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언니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례를 통해 우리 모두 ‘기적의 일상화’(Lifetime of miracle)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온전함을 사모하는 신앙계승을 이루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강사소개

*오늘: 폴 칠더스 목사 (YWAM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 Word By Heart 대표)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출 20:6)

현승원 의장 (주) 디슈어

'네 마음이 어디있느냐' (마 6:19-21)

3. 기쁨의 잔치 안내

예배 후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성도님의 귀한 헌신으로 '양관 떡'과 '꿀물'을 준비하였으니 받아가 주시고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남측 1층, 북측 지하 1층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안내

교회주차장, 더바인 웨딩, GS파크24(구현대), 파크 빌딩(아티저): 8시 30분 출차(이후 유료). 마제스타티티 지하 4, 5, 6, 7층 유료. 성숙한 주차 문화는 영성입니다.

5. 제 19차 글로벌 특별새벽부흥예배 감사헌금

불성착으로 보호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기도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실 주님께 특별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헌금은 내일 (4/18) 주일예배 헌금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6. 은혜 게시판 활용

오늘 포함해 지금까지 레터에 글이 실린 성도님들에게는 "72구절 성경암송 테이프"를 선물로 드립니다. 남측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다른 품목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열매 맺히고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950~999번에 해당되는 분에게 "72구절 성경암송 테이프"를 선물드립니다.

- 은혜게시판 1000번에 해당되는 분에게는 '언박싱 선물(Teleios 그림책와 키링, 퍼즐과 테이프 1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님께서 sarang on youtube영상 아래 '더보기 란에 나와있는 <연합 특새 홈페이지> 링크 https://together_revival.sarang.org/index.asp 를 클릭하셔서 은혜 게시판 (reflection 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성함과 교회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쓸지 말고, 게시판에 담아 두자

백진호_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마오주의의 위험

오스 기니스 교수님의 설교를 통해 세속주의의 성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속주의에 사로잡힌 무신론자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무렵의 재부흥화, 복음의 서진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S.O.C.A와 글로벌 특새로 받는 은혜와 지식의 용량 확장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장인애_ 문화적 하나님주의를 전공하는 자

오스 기니스 목사님과 조명한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저의 취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해 왔으며, 교육 현장과 인문학 학계 가운데 무신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계에서의 인성이나 세상의 성공, 학력이 아닌 '문화적 하나님주의'로 무장되어 신실함을 지키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김윤경_ 산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마지막 호흡까지 신실하게 서기를

거대한 세속주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신 오스 기니스 교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소운_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복부와 동부 유럽을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속적 인본주의와 동성애 합법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붙잡고 싶은 동자로 지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내와 충성으로 이 치열한 영역 전투를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교회와 파트너로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는 복유럽과 동유럽 교회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배영숙_ 찬양만으로도 기적!

나라를 위해! 하나님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찬양을 부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 곡조있는 기도문이었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은 내게 또 하나의 기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렸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각자의 생각으로 나누지도 않는,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찬양. 그것이 답입니다.



사진: BTS

발행인 오정현 기획 특새 TFT 발행처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우리는 특·세·대입니다.



두가지 기적
초등부 박서연 학생

첫번째 기적은 모든 기도제목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새벽에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특새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두번째 작은 기적은 퍼즐을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퍼즐에 우리 가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 19차 글로벌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날짜(예정): 주후 2021년 10월 18일(월) ~ 23일(토)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십시오.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기도합니다.